

PA-038

‘빠르미’ 벼 재식거리 및 주당 재식본수에 따른 수량 및 품질윤여태^{1*}, 정종태¹, 최현구¹, 이동재¹Yeotae Yun^{1*}, Chong Tae Chung¹, Hyun Gu Choi¹, Dong Jae Lee¹¹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서론]**

충남농업기술원에서 2018년 개발한 ‘빠르미’ 벼는 충남평야지에서 조기재배시 출수기가 6월 하순으로 국내 육성 품종 중 가장 빠르면서 수량성은 487kg/10a로 양호한 편이다. ‘빠르미’는 기본영양 생장기간이 짧고 분얼능력이 낮아 일반 재배법으로 재배시 이삭이 균일하게 출수되지 못하여 출수기간이 길어지고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품종 ‘빠르미’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9년 충남 예산의 벼 시험포장에서 신품종 ‘빠르미’의 재식거리와 재식본수에 따른 수량성과 품질검정을 통해 적정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분할구배치법으로 재식거리를 주구로 30x10cm(110주/3.3m²), 30x12(92), 30x14(79), 30x16(69) 4처리를 두었으며, 주당 재식본수는 세구로 3본, 6본, 9본을 하우스에서 20일 육묘한 모를 5월 2일 손이앙하였고, 시비량은 N-P-K=9-4.5-5.7kg/10a로 처리하였다. 생육조사는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1)에 따라 출수기, 간장, 수장, 수수 등을 조사하였으며, 수량성과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출수 후 40일에 50주를 수확 후 수분함량 15%로 건조하여 도정작업을 수행하였다. 품질분석을 위한 단백질함량은 성분분석기(Infratec 1241, Foss), 외관 품위분석은 품위분석기(Cevitec, Foss), 취반윤기치는 백미 33g을 정량하여 토요미터(MA90B, To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극조생종 빠르미의 출수기는 모든 처리구에서 6월 25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간장과 수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위면적당 이삭수는 동일한 재식거리에서 재식본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단위면적당 영화수는 30x10cm와 30x12cm의 재식거리에서 9본 이상시 가장 많았다.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인 처리구는 30x12cm의 재식거리에서 9본을 재배했을 때 530kg/10a로 가장 많았고, 30x16cm로 3주 이상시 463kg/10a로 가장 낮았다. 외관품위는 30x16cm의 재식거리를 제외한 모든 재식거리에서 9본 이상시 완전립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백질함량은 30x14cm 재식거리를 제외한 재식거리에서 재식본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반윤기치는 모든 처리구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주저자: Tel. +82-41-635-6052, E-mail, yotai@korea.kr